

제주 한시의 번역 양상 고찰

윤치부*

국문 요약

이 글은 제주 출신 학자들이 제주 관련 자료를 주로 제주에서 번역하여 간행한 번역서에 수록된 제주 한시의 번역 양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제주 관련 자료의 최초의 번역은 1970년대 들어 나타나는데,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향토 교육 자료로 간행한 『탐라문헌집』이 그것이다. 이 번역서에 수록된 자료들은 김상현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 일기체 한문수필이나 지지들이다. 이들 자료에는 적잖은 제주 한시들이 수록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 관련 자료의 번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배경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제주 관련 자료 번역에 힘썼기 때문이다. 제주 관련 자료의 범위도 한문수필이나 지지를 뛰어넘어 개인 문집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번역자의 면면도 오문복이나 김익수 같은 원로 한학자는 물론 한문학이나 국문학이나 사학 등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중진학자나 소장학자들이 대거 번역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¹⁾

그런데 이들 번역서에는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시어의 정확한 고증 없이 한시를 번역함으로써 문맥이 통하지 않는 오역을 한다는 점, 한시어 주석이 상식적 차원에서 설명되어 한시어 설명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필요한 한시어의 주석을 빠뜨림으로써 한시 해석에 오류를 보인다

* 제주대 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

는 점, 한문 원전을 오독함으로써 작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번역을 한다는 점, 이본에 따라 한시어의 변이현상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확한 번역을 하지 못한다는 점, 교정에 소홀하여 원전과 활자화한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제주 한시 번역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좀 더 체계적으로 한시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제주 한시, 번역 양상, 변이 현상, 주석

I . 머리말

지금까지 제주 관련 자료들에 대한 번역 작업은 꾸준하게 이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처럼 제주에 위치한 관련 기관들이 주도하는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와는 특별히 관련 없으면서도 민족문화추진회나 한국고전번역원처럼¹⁾ 국책 기관에서 주도하는 성과가 그것이다. 물론 이들 기관들과는 관계없이 여러 대학 연구소나²⁾ 종친회나³⁾ 개별 연구자

-
- 1) 김정희, 1986, 『국역 완당전집』3, 신호열 편역, 민족문화추진회, 1-377. ; 정온, 2000-2003, 『국역 동계집』1-2, 조동영 · 박대현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1-453, 1-506. ; 최익현, 1977, 『국역 면암집』1, 오양 · 김주희 · 유세희 · 이식공역, 민족문화추진회, 1-404.
 - 2) 김낙행, 2013, 『구사당집』1, 김대현 옮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458. ; 김윤식, 2013, 『운양집』3, 이지양 옮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96. ; 원감 · 안축 · 이제현 · 민사평, 1993, 『원감국사가송 · 근재집 · 익재집 · 급암집』, 이종찬 역,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78.
 - 3) 金淨, 1998, 『國譯 沖菴集』下, 金鍾燮 譯, 沖菴文簡公宗中, 1-337. ; 손순효, 1987, 『물재선생문집』, 張寅德 譯, 平海孫氏中央宗親會, 1-454.

들에⁴⁾ 의해서 번역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은 이 중에서도 일차적으로 제주 출신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제주에서 간행된 제주 관련 자료들에 한정하여⁵⁾ 제주 한시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 관련 자료의 번역은 제주 출신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적된 번역 성과가 상당한 분량이므로 이 모두를 한 편의 글에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머지 성과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글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주 출신 학자들에 의해서 축적된 번역 성과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동안 번역 작업에서 무엇이 소홀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번역 작업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현 시점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II. 서지적 개관

제주 한시와 관련된 문헌의 번역은 1970년대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한시집의 번역은 아니지만 향토 교육 자료를 발간하는 가운데서 몇몇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적잖은 한시들이 삽입되었다.

- ①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耽羅文獻集』, 金奉玉·洪貞杓·朴用厚·

4) 金尚憲, 1992, 『南槎錄』, 金禧東 譯, 永嘉文化社, 1-319. ; 백호 임제, 1997, 『譯註 白湖全集』(上)·(下), 신호열·임형택 공역, 창작과비평사, 1-571, 579-1124. ; 조위, 2009, 『梅溪集』, 이동재 옮김, 평사리, 1-602.

5) 邊景鵬, 2010,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공역,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468.처럼 제주 관련 자료의 번역에서 한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金泰能·金行玉·金啓淵 共譯, 제주도교육위원회,
1-463.

①은 지금까지 밝혀진 제주 한시 관련 문헌 중 최초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는 『영주지』·『충암의 제주풍토록』·『청음의 남사록』·『규창의 제주풍토기』·『태호의 탐라지』·『심재의 탐라기년』 등 5편의 자료가 번역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가 수록된 자료는 『청음의 남사록』·『태호의 탐라지』·『심재의 탐라기년』이다. 『청음의 남사록』에는 자작시 「장관편(壯觀篇)」 등 총 110편 22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제주한시는 88편 182수이다. 『태호의 탐라지』에는 자작시 「관덕정(觀德亭)」 등 76편 129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심재의 탐라기년』에는 고적(高適)의 「관풍상국(觀風上國)」 등 6편의 한시가 삽입되었는데, 제주한시는 5편이다. 먼저 한글 번역문을 적고 그 하단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별도의 주석이나 영인 한문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도 제주 한시 관련 자료의 번역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 있는 점은 본격적으로 제주 한시만을 번역한 번역서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② 吳文福, 1988, 『瀛洲風雅』, 봄데강, 1-231.

③ 林 梯, 1989, 『南溟小乘』, 朴用厚 譯, 도서출판 제주문화, 1-77.

②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오문복이 제주 한시를 모아 번역한 제주에서 간행된 최초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는 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에까지 다녀온 고득종(高得宗)의 「홍화각(弘化閣)」을 비롯하여 137편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그러나 실제

로 제주 한시는 126편으로 나머지 11편은 고조기(高兆基)의 「안성역(安城驛)」처럼 제주 한시가 아니다. 작자는 대부분 제주 출신이나 허손(許懸)처럼 유배인이거나 실명씨처럼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은 물론 글자풀이와 감상까지 수록하였으며, 책의 말미에는 지은이까지 소개하였다. 작품의 출전을 밝히지 않았으며, 원전의 한문 원문도 수록하지 않았다.

③은 조선 선조 때 백호 임제가 제주목사로 있는 아버지 임진(林晉)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제주를 일주하면서 견문한 내용의 일기체 한문수필인 『남명소승』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26편의 한시가 삽입되었는데, 제주 한시는 「영랑곡(迎郎曲)」 등 23편이다. 책의 앞부분에 번역자가 필사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뒤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1990년대에는 들어와서는 번역서 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⑥처럼 본격적인 개인 문집이 번역되기 시작한다.

- ④ 李元鎮, 1991, 『耽羅志』, 金相助 譯,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323.
- ⑤ 李益泰, 1997, 『知瀛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364.
- ⑥ 李漢震, 1998,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1-495.
- ⑦ 吳文福 編譯, 1998, 『漢詩選』, 제주문화, 1-1054.
- ⑧ 申容俊 編, 1999, 『李衡祥濟州詩文選』, 탐라목석원출판부, 1-288.

④는 제주도 관련 읍지의 효시로 꼽히는 조선 효종 때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를 번역한 것으로 ①에 이어 두 번째 번역이다. 책의 앞부분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고 뒤에는 목판본 한문 원문을 영인 하였으나 주석이나 활자화한 한문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한글 번역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어에는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⑤는 조선 숙종 때 저자가 제주목사를 제수받고서부터 떠날 때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일기체 한문수필 『지영록』을 번역한 책으로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도갑사(道甲寺)」 등 총 32편의 한시가 삽입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는 28편으로 자작시 「장암곡(掌岩谷)」 등 7편이고, 나머지는 제주 순무사(巡撫使) 이경억(李慶億)이나 제주 목사 이원진 등이 쓴 인용시이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 없이 번역문만 수록하였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⑥은 조선 후기 제주 출신 문인 이한진의 문집 『매계선생문집』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총 180편의 한시를 수록하였는데, 「나주를 지나다(過羅州)」처럼 제주 한시가 아닌 작품도 더러 있다. 또한 「영주십경(瀛洲十景)」의 경우 11편은 자작시이나 66편은 이용식(李容植) 등의 인용시이다. 우리말 번역문은 물론 활자화한 한문 원문과 자세한 각주를 달고 있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한자를 외현하였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까지 영인하였다.

⑦은 화제(畫題)에 적합한 우리나라와 중국 시인들의 한시 924편 1011수를 번역하였다. 이 중 제주 한시는 조정철(趙貞喆)의 「국화를 노래하다(詠菊)」 등 12편 28수이다.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먼저 수록한 다음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으며, 하단에는 간단한 글자풀이를 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간략하게 작자를 소개하였다.

⑧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역 병와집』(1990)에서 제주와 관련된 시·악부·명·전·서·상량문·축문·제문·장계 등을 발췌하여 편간한 책이다. 이 책에는 「단금(檀琴)」 등 14편 16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먼저 한글 번역문을 수록한 다음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각 페이지 하단에는 각주를 달았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으나 한시 원문은 영인에서 빠져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주 한시 관련 번역서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문집들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면서 개별 작가의 제주 한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24권의 번역서 가운데 가장 많은 번역한 사람은 원로 한학자 오문복과 김의수이다. 각각 10권과 8권씩을 번역함으로써 이 시기 번역서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김봉옥처럼 70년대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번역 활동을 이어 온 선학도 있지만 홍순만·김찬흡·고창석·김혜우·김상옥·김순이·조성윤·홍기표·박찬식·강창룡·오창명·현행복·오수정 등 중진 학자와 소장학자들이 제주 한시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번역 작업에 힘썼기 때문이다.

- ⑨ 오문복·양종렬·문순덕·신용만·오종훈·김새미오, 2000, 『濟州島磨崖銘』,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1-223.
- ⑩ 金浢·慎鴻錫, 2000, 『老橘詩集禾菴詩集』,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439.
- ⑪ 濟州文化院, 2000,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金奉玉 譯, 濟州文化院, 1-189.
- ⑫ 李 增, 2001, 『南槎日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506.
- ⑬ 金 儀, 2001, 『虛峰文集』,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366.
- ⑭ 이원진, 2002, 『여주 탐라지』, 김찬흡·고창석·김혜우·김상옥·조 성윤·강창룡·오창명·오수정 공역, 푸른역사, 1-471.
- ⑮ 金斗奉, 2003, 『濟州島實記』, 吳文福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1-480.
- ⑯ 金熙敦, 2003, 『水隱詩集』, 吳文福 譯, 濟州大學校 慄羅文化研究所, 1-196.
- ⑰ 金千亨 編, 2004, 『耽羅史料文獻集』, 도서출판 디딤돌, 1-587.
- ⑱ 任徵夏, 2004, 『西齋集』, 金益洙 譯, 全國文化院聯合會濟州道支會, 1-298.
- ⑲ 현행복, 2004, 『訪仙門』, 도서출판 각, 1-180.
- ⑳ 金灝植, 2004, 『革菴散稿』, 吳文福 譯, 北濟州文化院, 1-367.
- ㉑ 金熙敦, 2005, 『水隱文集』, 吳文福 譯, 濟州大學校 慄羅文化研究所,

1-171.

- ㉒ 金奉鉉, 2005, 『濟州島流人傳』, 洪性穆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1-375.
- ㉓ 金勻培, 2005, 『謹齋北學日記』, 吳文福 譯, 北濟州文化院, 1-495.
- ㉔ 金春澤, 2005, 『北軒集』, 金益洙 譯, 全國文化院聯合會濟州道支會, 1-822.
- ㉕ 淡水契 編, 2005, 『譯註 增補耽羅誌』, 金順伊·金日宇·洪淳晚·金益洙·洪琦杓·朴贊植·高應三·金粲洽·吳文福 共譯, 濟州文化院, 1-915.
- ㉖ 현행복, 2006, 『翠屏潭』, 도서출판 각, 1-240.
- ㉗ 吳文福 編譯, 2006,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1-521.
- ㉘ 金景鍾, 2006, 『白首餘音』, 白圭尙 譯, 北濟州文化院, 1-521.
- ㉙ 이약동, 2006, 『노촌선생문집』, 오문복 역, 제주교육박물관, 1-202.
- ㉚ 趙貞喆, 2006, 『靜軒瀛海處坎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947.
- ㉛ 李源祚, 2007-2008, 『耽羅誌草本(上)·(下)』, 고창석·김찬흡·오문복·김혜우·김상옥·강창룡·오창명·오수정 공역, 濟州教育博物館, 1-381, 1-362.
- ㉜ 濟州文化院, 2007, 『譯註 濟州古記文集』, 金日宇·洪琦杓·金益洙 共譯, 濟州文化院, 1-430.
- ㉝ 金尚憲, 2008-2009, 『南槎錄 譯註(上)·(下)』, 洪琦杓 譯, 濟州文化院, 1-525, 1-387.
- ㉞ 安秉宅, 2008-2015, 『浮海文集』I -IV, 吳文福 譯, 濟州文化院, 1-427, 1-549.
- ㉟ 김은석·윤치부·박찬식, 2008, 『김만덕자료총서』II, 김만덕기념사업회, 1-292.

⑨는 백록담·방선문·오등동·용연·산방산 등 제주 전역에 산재한 마애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는 광해군 때 제주판관을 지낸 김치(金緻)의 「환선대(喚仙臺)」 등 24편의 제주 한시가 번역되어 있다. 한시의 경우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은 다음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탁본한 마애명 사진을 수록하여 활자화한 한문 원문과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은 조선 후기 제주의 문사인 김협의 『노굴시집』과 신흥석의 『화암시집』을 함께 번역한 책이다. 『노굴시집』에는 「굴을 읊다(咏

橋)」 등 178편 241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금강을 유람하다(旅遊錦江)」처럼 제주 한시로 볼 수 없는 작품도 더러 수록되었다. 『화암시집』에는 「고기잡이 불빛(漁火)」 등 123편 154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서울 나그네 길에 한식을 맞은 느낌(漠城客中遇寒食有感)」처럼 제주 한시와는 동떨어진 작품도 역시 눈에 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한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곳에 따라 각 페이지 하단에 간략한 각주를 달았다.

⑪은 임제(林悌) · 김상현(金尙憲) · 김치(金緻) · 이형상(李衡祥) · 이원조(李源祚) · 최익현(崔益鉉) · 이은상(李殷相) 등의 『등한라산기』나 『유한라산기』를 번역한 책이다. 제주 한시는 이 중 임제 · 김상현 · 김치 등의 작품에 삽입되었다. 임제의 『등한라산기』에는 「한라산시」 등 10편의 제주 한시가 삽입되었다. 김상현의 『등한라산기』에는 「천불봉(千佛峰)」 등 7편 8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보허사(步虛詞)」 등 2편은 임제의 한시를 인용한 것이다. 김치의 『등한라산기』에는 「등한라산」 등 3편이 작품의 말미에 수록되었고, 이은상의 『한라산 등반기』에는 김치의 「등한라산」과 김인후(金麟厚)의 「한라산」이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이들은 ①처럼 번역문을 먼저 수록하고 하단에는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는데, 필사본 한문 원문은 영인하지 않았다.

⑫는 조선 숙종 때 제주안핵겸순무어사(濟州按覈兼巡撫御史)로 임명받아 5개월 간 제주에 체류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일기체 한문수필로 엮어낸 이중의 『남사일록』을 번역하였다. 「노강의 배 위에서 제공과 이별하다(露江船上留別諸公)」 등 총 121편 19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이 중 제주 한시는 「처음 탐라 화북성에 정박하여 본 것을 기록하다(初泊耽羅禾北城記所見)」 등 83편 152수이다. 자작시는

69편 94수이며 나머지는 인용시이다. 한글 번역문을 먼저 적고 그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나란히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⑬은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노봉 김정의 『노봉문집』을 번역한 책으로 권1에 「이천 가는 길에(利川道中)」 등 249편 302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는 「망경루를 이별하다(別望京樓)」 등 66편 74수이다. 각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몇몇 시어들에 한해서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하단에는 여러 군데에 간단한 각주를 달고 있다. 「가장(家狀)」은 책의 뒤에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으나 한시의 필사본 한문 원전은 영인에서 빠져 있다.

⑭는 ①과 ④에 이은 세 번째 번역이다. 한시의 경우 한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좌측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바로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각 페이지마다 상세한 각주를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뒤에는 목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대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⑮는 1932년에 간행된 김두봉의 『제주도실기』를 번역한 책으로 충암 김정의 「청풍대(淸風臺)」 등 71편 73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중 63편의 한시가 「탐라지보유」 '한시'편에 주로 수록되었으나 『제주도실기』의 '제25장 고대인물'편에도 고조기(高兆基)의 「송당의 밤비(松堂夜雨)」 등 8편은 이중으로 수록되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이어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몇몇 시어에 대해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활자본 원문을 책의 뒤에 영인하였다.

⑯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제주시 조천리 출신 김희돈의 『김수은시집』·『수은재시집』·『잡문집』 가운데에서 한시 작품만을 가려 뽑아 번역한 책으로 「한라산」 등 총 122편 148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대개 일상에서 느낀 감회를 읊고 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한 다음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고 이어 간단한 글자풀이를 하였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⑰은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등 28권의 국역 문헌에서 제주 관련 사료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 가운데 한시가 수록된 문헌은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등 8권으로 이들 책에는 고조기(高兆基)의 「안성역(安城驛)」 등 160편 164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는 이형상(李衡祥)의 「단금(檀琴)」 등 125편 129수이다. 활자화 한 한문 원문 없이 한글 번역문만을 수록하였으며, 이어서 간단한 주를 달고 있다. 책의 뒤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⑱은 영조 때 시무(時務) 6조의 소를 옮겨 텅평책을 반대하면서 소론의 제거를 주장한 죄로 대정현 감산촌에 유배되었다가 의금부로 압송되어 옥사한 서재 임징하의 『서재집』을 번역한 책으로 「남천록(南遷錄)」·「감산록(甘山錄)」·「영어록(嶺園錄)」 등에 총 62편 124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는 「남천록」과 「감산록」에 수록된 22편 67수이다. 각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 한해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군데군데 약간의 각주를 달았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⑲는 방선문 마애명(磨崖銘)을 번역한 것으로 이 책에는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홍중징(洪重徵)의 「등영구(登瀛丘)」 등 10 편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왼쪽 짹수 페이지에는 마애명 사진

자료를 첨부하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과 이어 한글 번역문을 세로쓰기하여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페이지 하단에는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은 일제강점기 조천리에서 한학자로 활동했던 혁암 김형식의 『혁암산고』를 번역한 책으로 이 책에는 「아침에 성환역을 떠나다(曉發成歡)」 등 총 171편 216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제주 한시는 「영주십경시」 등 157편 199수이다. 각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아래 한글 번역문을 가로쓰기하였다. 각 페이지 하단에는 간단한 각주를 달았으나 필사본 한문 원문은 영인하지 않았다.

㉑은 ㉏에 수록되지 못한 「도해가(踏海歌)」 등 10편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각 페이지 하단에는 글자풀이를 하였고,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㉒는 일본에서 간행된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연산군 때 제주에 유배된 홍유손(洪裕孫)의 「비선(飛仙)」 등 42편 4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제주 한시는 태조 때 제주에 유배된 김만희의 「한라산」 등 33편 36수이다. 제주의 유배인을 소개하면서 한시를 삽입한 것으로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밝히고, 이어서 한글 번역문을 소개하는 순이다. 제목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각주는 없다.

㉓은 영주음사(瀛洲吟社) 사장을 지낸 김균배의 『근재북학일기』를 번역한 책으로 「입산(入山)」 등 21편의 한시가 삽입되었다. 주로 광주의 부해(浮海) 안병택(安秉宅) 문하에서 공부할 때 들었거나 읊은 시들로 제주 한시와는 거리가 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 없이 한글 번역문만을 적었으며,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

다.

㉔는 김춘태의 『북현거사집』 중 숙종 때 6년 동안 제주에서 유배 생활 때 지은 시문들을 모아 『북현집』이라는 이름으로 국역 출판한 것이다. 이 번역서에는 「제주」 등 127편 202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 되었다. 한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 바로 밑에는 작은 글씨로 독음을 달았고, 군데군데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㉕는 20세기 시점에서 제주도의 옛 지지들을 조감하면서 보완한 『증보탐라지』를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권근(權近)의 「응제시(應製詩)」 등 271편 290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한시의 경우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가끔 하단에 각주를 달기도 하였다.

㉖은 용연 마애명과 여러 문헌의 용연 관련 한시들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조선 영조 때 시정(時政)과 언로(言路)를 바로 하는 일에 대해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에 유배되었던 임관주(任觀周)의 「용연」 등 52편 63수가 수록되었다. 마애명 시는 한 페이지 상단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세로쓰기하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가로쓰기하였다. 다음 페이지부터 어석과 시를 설명한 추임새를 실었다. 다른 문헌의 시는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먼저 적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는데, 역시 시를 설명한 추임새를 실었다. 각 시마다 운자를 밝히고 있다.

㉗은 제주에 벼슬살이 왔거나 유람으로 거쳐 간 이들의 시와 제주 인이나 제주에 와있는 사람에게 보낸 한시를 모아 번역한 책으로 숙종의 「탐라지도(耽羅地圖)」 등 270편 441수의 시가 수록되었다. 페

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밑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으며, 하단에는 글자풀이나 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참고를 실었다. 책의 말미에는 작자를 소개하였다.

㉙은 해방 후 영주음사 사장을 지낸 석우(石友) 김경종의 『백수여 음』을 번역한 책으로 이 책에는 「고목」 등 총 343편 380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주로 당시 교유했던 인물들과 세시풍속, 자연의 풍광과 변화, 노년의 감회 등을 읊었다.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하단에는 간단한 글자풀이를 실었다.

㉚는 조선 성종 때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던 이약동의 『노촌선생문집』을 번역한 책으로, 이 책에는 「자손들에게 경계 하다(遺戒子孫)」 등 총 41편 71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제주 한시는 「관덕정에 쓰다(題濟州觀德亭)」 등 33편 34수이다. 주로 탐라로 갈 때 전별시, 사간원에서 회답시, 동도로 갈 때 전별시, 송악으로 갈 때 전별시, 명나라로 갈 때 전별시 등으로 자작시는 6 편이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 없이 한글 번역문만을 수록하였으며, 책의 뒤에는 목활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㉛은 조선 정조 때 27세의 나이로 제주에 유배되어 27년을 적거하였고 순조 때 환갑의 나이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조정철의 『정현 영해처감록』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적거 중에 아이 생일을 맞아 그에게 시 10편으로 축원하며 짓다(謫中值兒生日追賦願爾十篇以祝)」 등 모두 421편 526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각 시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적었다. 여러 군데에 간단히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㉜은 조선 현종 때 제주목사로 왔던 응와(凝窩) 이원조의 『탐라지

초본』을 상·하로 나누어 번역한 책으로 이 책들에는 권근의 「응제시」 등 모두 188편 240수의 제주 한시가 삽입되었다. 한시의 경우 작자를 먼저 밝히고, 그 아래를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한시와 관련된 각주를 군데군데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㉙는 김정의 『제주풍토록』, 임제의 『남명소승』, 이건의 『제주풍토기』, 신광수의 『탐라록』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이 가운데 한시가 수록된 자료는 『남명소승』과 『탐라록』인데, 『남명소승』은 ③에 이은 두 번째 번역이다. 『탐라록』에는 「해월루(海月樓)」 등 58편 8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제주 한시는 「잠녀가」 등 51편 76수이다. 한글 번역문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었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들에는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는 간단한 각주를 달았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㉚는 조선 선조 때 길운절(吉雲節) 사건으로 흉흉한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청음 김상현이 제주안무어사로서 6개월 남짓 제주를 다녀갔던 기록인 『남사록』을 번역한 책으로, 이 책에는 「과천 가는 길 애(果川道中)」 등 총 110편 22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중 제주 한시는 청음의 「천불봉시千佛峯)」 등 88편 182수이다. 한글 번역문을 먼저 수록하고 이어서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몇몇 시어에는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군데군데 각주를 달고 있으며, 책의 뒤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㉛는 조선 말기 제주 출신으로 전라도 광주 장덕리에서 교학활동을 한 부해 안병택의 『부해문집』을 번역한 책으로 『부해문집』 I에는 「차를 달이다(煮茶)」 등 총 229편 389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또한 『부해문집』IV의 보유편에는 「관어당에서(上觀魚堂)」 등 20편 47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대부분의 시가 광주 등에서 지어진 시로 보이며, 제주 한시로 보이는 시는 「김녕 가는 길에(金寧途中)」 등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군데군데 각주를 달았으며, 『부해문집』 IV의 말미에만 필사본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는 김만덕 관련 기사류와 전 등의 자료를 모아 번역한 책으로 김만덕 관련 한시가 전 속에 5편이 삽입되었다. 이 중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와 『증보탐라지』의 한시는 이가환(李家煥)의 시로 동일한 작품이다. 먼저 한글 번역문을 적고 그 다음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었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 대해서는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여러 군데 각주를 달았고, 책의 뒤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제주 한시 관련 번역서들이 출간되고 있는데, 오문복과 김익수와 백규상 등이 계속해서 번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길·오창림·허선휴·임병건·임용진·김새미오·손기범 등의 신진 번역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⑧에 이어 ⑫와 ⑬과 ⑭를 번역한 백규상의 왕성한 번역 활동이 눈길을 끈다.

⑯ 南九明, 2010, 『國譯寓庵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教育博物館, 1-814.

⑰ 李 健, 2010, 『譯註葵窓集』, 金益洙 譯註, 濟州文化院, 1-581.

⑱ 현행복, 2010, 『牛島歌』, 도서출판 각, 1-306.

⑲ 金錫翼, 2011, 『濟州 속의 耷羅』, 오문복·오창림·허선휴·임병건·임용진·김새미오 공역,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354.

⑳ 조사수·박충원, 2011, 『嶺海唱酬錄』, 현행복 역, 제주시 문화유적 관리사무소, 1-574.

④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4, 『한라산의 마애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1-240.

④② 宋麟壽, 2014, 『譯註 圭菴先生文集』, 白圭尙 譯, 제주교육박물관, 1-618.

④③ 金羲正, 2014, 『海殷文集』, 白圭尙 譯, 濟州文化院, 1-842.

④④ 金錫翼, 2015, 『譯註耽羅紀年』, 洪琦杓 · 白圭尙 · 金새미오 · 孫基範 共譯, 제주문화원, 1-472.

④⑤은 조선 숙종 때 3년 가까이 제주판관을 지낸 우암 남구명의 문집을 번역한 책으로 「한계에서 월성으로 가며 형들께 이별을 알리다(自閑溪向月城告別諸兄)」 등 190편 26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제주 한시는 「보탁라가(補毛羅歌)」 등 78편 15수이다. 한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오른쪽에 나란히 적은 다음 각 시마다 주석을 달았다. 번역문의 경우 몇몇 시어에 대해 한자를 외현하였으며, 책의 뒤에는 목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④⑥은 1628년(인조 6) 인성군(仁城君)이 역모 혐의로 대역 처분을 받았을 때 두 형과 함께 15세의 나이로 제주에 유배되었던 규창 이건의 『규창집』을 번역한 책으로, 「운주당에 올라(登運籌堂)」 등 423편 501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그러나 「탕춘대에 들려(過蕩春臺)」 등 제주 한시가 아닌 작품도 더러 있다. 각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오른쪽에는 한글 번역문을 적었으며, 하단에는 간단한 각주를 달았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 한 시어의 경우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책의 뒤에는 목활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④⑦은 충암 김정의 『충암집』 등에 수록된 「방생이 우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노래로 흥을 붙이다(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를 번역한 책이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과 그 독음을 먼저 제시한 다음 영인한 필사본 한문 원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한글 번역문과 상세한 주석 등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⑨는 일제강점기 때 제주의 한학자인 심재 김석익의 『심재집』 가운데 「파한록(破閑錄)」·「탐라인물고」·「탐라기년」부록 등을 번역하였다. 이 책에는 차천로의 「정월보름(正月望)」 등 22편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제주 한시는 청음 김상현의 「모흥혈(毛興穴)」 등 16편이다. 한시의 경우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적고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었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시어에 한해 한자를 외현시켰다.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⑩은 조선 중종 때 제주목사 조사수(趙士秀)와 영월군수 박충원(朴忠元)이 서로의 회포를 풀고 지절을 다잡기 위해 창수한 시들을 묶은 『영해창수록』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에는 「금성관에서 유숙하며 주인 운에 차함(留宿錦城館次主人韻)」 등 150편 211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제주 한시는 「관덕정시에 차운하여(觀德亭韻)」 등 58편 109수이다. 활자화한 한문 제목과 작자를 밝힌 다음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시어에는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하단에는 각주를 달았다. 책의 뒤에는 목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⑪은 ⑨에 이어 백록담을 비롯하여 탐라계곡과 방선문 등에 새겨진 마애명을 조사한 책이다. 이 책에는 조선 영조 때 제주에 유배되었던 정이환(鄭履煥)의 「한라산」 등 22편 23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실제 마애명 한시는 14편 15수이다. 한시의 경우 먼저 마애명 사진과 탁본을 제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적었으며, 그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⑫는 조선 중종 때 제주목사를 역임한 규암 송인수의 『규암집』을

번역하였는데, 이 책에는 「환선정에 쓰다(題喚仙亭)」 등 74편 95수의 한시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제주 한시는 「제주에 와서 느끼는 감회(濟州有感)」 1편뿐이다. 각 페이지마다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 한글 번역문을 적었다. 페이지 하단에는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활자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④은 일제강점기 때 제주 조천 출신의 유학자인 해운 김희정의 문집을 번역한 책으로, 이 책에는 「제주잡영(濟州雜詠)」 등 314편 411수의 제주 한시가 수록되었다. 먼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페이지 하단에는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였다.

④는 ①에 이어 심재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두 번째로 번역한 책이다. 한시의 경우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먼저 적고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으며, 하단에는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또한 책 뒤에는 필사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제주 한시의 번역에 나타난 문제점

제주 한시 관련 여러 번역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한시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주석이 명료하지 않은 문제, 한문 원전을 오독하는 문제, 이본의 변이 현상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 교정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 한시 번역에서는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 한시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한시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한시어의 뜻을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작자의 작품세계와는 무관한 문맥이 통하지 않는 번역이 되어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시 번역의 생명이 정확한 번역에 있다면 한시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짚어 낼 수 있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김경종의 『백수여음』에 수록된 「석류화」⁶⁾의 번역 사례 인데, 7구의 ‘안석(安石)’을 고증하지 않고 임의대로 뜻풀이하고 있다. 다음은 번역시의 전문이다.

한 멀기 산호 같이 맑은 물에 비쳤으니
어느 누가 이 강성에 옮겨다 심었을까
머금은 아침이슬 두 뺨은 촉촉하고
여름날 저녁더위 비단옷 환해지네
너 또한 붉은 입술 할 말이 있을진대
내 비록 백발이라고 어찌 무정하겠느냐
예부터 태고남이 돌을 편안히 여기어
집집마다 전해져서 곳곳에서 자라났네⁷⁾

‘안석’을 “돌을 편안히 여기어”로 번역함으로써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는 번역이 되고 있다. 이는 ‘안석’에 대한 고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석류가 ‘안석류(安石榴)⁸⁾’에서 비

6) 金景鍾, 『白首餘音』「石榴花」一朶珊瑚映水清, 何人移植此江城. 朝含澹露
曉脂濕, 晚曝炎陽錦繡明. 爾且丹脣如有語, 吾雖白髮豈無情. 古來元本從安石,
傳播閭閻處處生.

7) 金景鍾, 2006, 『白首餘音』, 白圭尚 譯, 北濟州文化院, 44.

8) 張華, 2003, 『博物志』6 張騫使西域還, 得大蒜·安石榴·胡桃·蒲桃(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4,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68. ; 諸橋轍

롯된 말임을 감안할 때 ‘안석’의 뜻은 여기서 ‘안석국(安石國)’으로 해석해야 한다. 안석국은 옛 페르시아로서 석류나무의 원래 고향이며, 석류는 남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인도 서부까지 넓게 걸쳐있었는데,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페르시아를 안석국이라 했으므로 ‘안석류’라고 부르다가 석류가 되었다. 중국에 석류가 전해진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경으로 당시 전한(前漢)의 무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장건(張騫)이란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제휴하여 흉노를 협공하자는 특사였다. 그러나 외교는 실패했고, 오히려 흉노에 붙잡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다. 외교문서 대신 괴나리봇짐 속에는 동서양 식물교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씨앗 몇 알이 들어있었다. 바로 석류, 호두, 포도 등 지금도 우리와 친숙한 과일들이었다. 따라서 7구의 해석은 “예부터 타고남이 돌을 편 안히 여기어”가 아니라 “예부터 원래 안석국에서 비롯된 것인데”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그런가 하면 ‘도사양(道士羊)’의 고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번역한 사례도 눈에 띤다. 다음은 김상현의 『남사록』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⁹⁾ 23절 번역문이다.

먼 곳 사람 그렇게 왕명(王命) 높일 줄을 알아
나의 옴을 도와서 풍악 소리 울리네.
갯가의 험한 바위 도사(道士)가 해매고
길가의 많은 돌은 선인(仙人)이 거울삼네.¹⁰⁾

次, 1956, 『大漢和辭典』3, 大修館書店, 3192.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1962, 『中文大辭典』3, 中國文化大學出版部, 376.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3, 上海辭典出版社, 1328.)

9) 崔溥, 『南槎錄』「耽羅詩」遠人頗識尊王命, 扶我登途笳鼓競 浦口纔巖道士羊, 路周磊落仙人鏡.

‘도사양’을 “도사가 헤매고”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 ‘도사양’은 곧 『몽구(蒙求)』의 표제(標題)인 ‘초평기석(初平起石)’이다. 한 나라 때 단계(丹溪)에 황초평(黃草平)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양을 치다가 도사를 따라 도를 닦게 되었고, 형이 동생을 찾아가 치던 양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자 산에 두었다하여 가보았는데 하얀 돌들만 있었으므로 초평이 돌들을 꾸짖자 모두 양으로 변했다는 고사를 나타낸 말이다.¹¹⁾ 따라서 3구는 ‘포구의 울뚝불뚝한 바위는 도사양인 듯하고’로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오역은 ⑪에 이르러서야 바로 잡히고 있다.

2. 주석이 명료하지 않은 문제

한시 해석에서 한시어의 주석은 한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자 역할을 한다. 특히 한시어에 따라 하나의 한시어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문맥에 가장 적합한 뜻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일은 번역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어의 여러 의미를 간과한 채 보통 일차적인 뜻으

10)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耽羅文獻集』, 金奉玉·洪貞杓·朴用厚·金泰能·金行玉·金啓淵譯, 제주도교육위원회, 65.

11) 葛洪, 『神仙傳』「黃初平」黃初平者, 丹溪人也, 年十五, 家使牧羊, 有道士見其良謹, 便將至金華山石室中, 四十餘年不復念家, 其兄初起, 行山尋索初平, 歷年不得, 後見市中有一道士, 初起召問之……道士曰, 金華山中有一牧羊兒, 姓黃, 字初平, 是卿弟非疑, 初起聞之, 卽隨道士去求弟, 遂得相見, 悲喜語畢, 問初平羊何在, 曰, 近在山東耳, 初起往視之, 不見, 但見白石而還, 謂初平曰, 山東無羊也, 初平曰, 羊在耳, 兄但自不見之, 初平與初起俱往看之, 初平乃叱曰, 羊起, 於是白石皆變爲羊, 數萬頭(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앞의 책, 487.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2, 大修館書店, 230.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1962, 『中文大辭典』10, 中國文化大學出版部, 931.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2, 上海辭典出版社, 618.)

로만 해석함으로써 한시 해석이 투박스럽거나 애매모호한 번역이 되어 버린다. 정확한 주석은 바로 이러한 투박스러운 번역이나 애매모호한 의미를 극복하게 해 준다. 다음은 남구명의 『우암선생문집』에 수록된 「이중옥의 운을 따르다」¹²⁾의 번역시 전문이다.

먼 길 억센 파도 건너고도 피로하다 않고
 굴현 깊은 곳에 어리숙히 앉아 있네
 조개껍질 거북껍질 갓과 옷에 붙일 수 있겠지만
 교룡 악어 둘려 있어 약속 지키기 멀어지겠네
 승지의 정취들 다 좋은 시구에 담아놓고
 선인들과 더불어 자하주도 권하리라
 이 기절한 곳 즐기기 평생에 좋은 일이니
 벼슬 놓고 고향 갈 날 늦어진다 한탄 말지라¹³⁾

이 시에서 문제가 되는 시어는 3구의 “조개껍질 거북껍질”로 번역한 ‘개린(介鱗)’과 “갓과 옷”으로 번역한 ‘관裳(冠裳)’이다. 먼저 ‘개린’은 ‘① 조개와 물고기, 패류와 어류.’의 뜻만¹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② 중국인이 변방의 종족을 얕잡아 일컫는 말’의 뜻이나¹⁵⁾ ‘③ 어류의 전설상 조상’의 뜻도 함께 있다.¹⁶⁾ 그

12) 南九明, 『寓庵先生文集』1 「次李仲玉韻」 遠涉鯨波不道疲, 橋軒深處坐如曠。
 介鱗換著冠裳至, 蛟鱗還從約束移, 勝境盡輸紅錦橐, 仙人相勸紫霞卮. 級遊奇絕
 平生最, 投紱歸山莫恨遲.

13) 南九明, 2010, 『國譯寓庵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教育博物館, 55.

14) 『淮南子』 「兵略訓」 下至介鱗, 上及毛羽.(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1,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810.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
 典』1, 大修館書店, 595.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1962, 『中文大辭典』1, 中國
 文化大學出版部, 783.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1, 上海
 辭典出版社, 1077.)

15) 『後漢書』 「楊終傳」 故孝元奔珠崖之郡, 光武絕西域之國, 不以介鱗易我衣
 裳.(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1,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810.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1, 大修館書店, 595. ; 中文大辭典編纂委
 員會, 1962, 『中文大辭典』1, 中國文化大學出版部, 783. ; 漢語大詞典編纂委員
 會, 1994, 『漢語大詞典』1, 上海辭典出版社, 1077.)

런데 이 번역서에서는 ①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조개와 물고기 등 비늘이나 딱딱한 등딱지가 있는 바다 생물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주석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⁷⁾

그런가 하면 ‘관상’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지 않고 “갓과 옷”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관상’은 ‘① 갓과 옷.’의 뜻¹⁸⁾ 말고도 ‘② 관복을 입음.’이나¹⁹⁾ ‘③ 벼슬아치.’이나²⁰⁾ ‘④ 문명. 또는 예의와 제도.’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위 한시의 번역에서는 모두 일차적인 ①의 뜻으로만 해석함으로써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투박한 번역이 되어 버렸다. 이보다는 ‘개린’은 ‘② 중국인이 변방의 종족을 얕잡아 일컫는 말’로서 번역하고 ‘관상’은 ‘④ 문명. 또는 예의와 제도.’로서 번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변방 족속 예의와 제도 바꾸려 왔으나’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어울릴 것이다.

16) 『淮南子』 「墜形訓」 介鱗生蛟龍, 蛟用生鯢鯔, 鯢鯔生建邪, 建邪生庶魚, 凡鱗者生於庶魚。(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1,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810.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1, 大修館書店, 595.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1, 上海辭典出版社, 1077.)

17) 南九明, 2010, 『國譯寓庵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教育博物館, 56.

18) 羅大經, 『鶴林玉露』7 [劉子澄] 守衡陽日, 以冠裳蒞事, 憲使趙民則嘗紫衫來見。子澄不脫冠裳肅之, 民則請免冠裳。子澄端笏肅容曰, 戒石在前, 小臣豈敢民則皇恐, 退具冠裳以見。(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300.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2, 上海辭典出版社, 445.)

19) 『宋史』 「范應鈴傳」 凤興, 冠裳聽訟, 發擿如神。(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300.)

20) 范成大, 「胡宗偉罷官改秩作詩送之」 萬境何如一丘壑, 幾時定解冠裳縛。(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300.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2, 上海辭典出版社, 445.)

21) 洪人玕, 『誅妖檄文』 智士趣時, 必在取亂侮亡之會, 況削爾父母毛髮, 毀我往古冠裳。(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300.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2, 上海辭典出版社, 445.)

그런가 하면 다음은 이한진의 『매계선생문집』에 수록된 「용연 밤 뱃놀이」²²⁾의 번역시 전문으로 주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검은 용 잠 깊이 들고 달은 높이 솟으니
구름 쓴 병풍바위 푸른 거울에 드리워졌네.
저물녘부터 북 울려 호기로운 흥취 일으키니
취한 뒤 휘어진 낚시대 잡고 세상을 낚노라.²³⁾

이 번역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구의 ‘육오(六鰐)’를 번역한 “세상”이라는 뜻이다. ‘육오’는 원래 신화에서 다섯 선산(仙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여섯 마리의 큰 자라를 뜻하는 말로서 그 선산은 대여(岱輿) · 원교(員嶠) · 방호(方壺) · 영주(瀛洲) · 봉래(蓬萊) 등을 말하는데, 발해(渤海)의 동쪽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²⁴⁾ 그런데 이 책의 주석에서는 ‘육오’를 “여섯 자라. 바다 속에서 땅덩이(이 세상)를 떠받치고 있는 자라들이다.”로 설명함으로써 ‘육오’를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주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육오’의 번역도 ‘다섯 마리 자라’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것이다.

22) 李漢震, 『梅溪先生文集』「龍淵夜帆」 驚睡初濃月正高, 雲屏翠倒鏡中濤. 晚來豪興催簫鼓, 醉把虹竿釣六鰐,

23) 李漢震, 1998,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51.

24) 『列子』 「湯問」 帝恐流於西極, 失群仙聖之居, 乃明禹彊使巨鼈十五, 舉首而戴之, 迭爲三番, 六萬歲一交焉, 五山始峙而不動, 而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鰐, 合負而趣歸其國, 灼其骨以數焉, 於是岱輿, 員嶠二山流於北極, 沈於大海, 仙聖之播遷者巨億計.(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24.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2, 大修館書店, 48.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1962, 『中文大辭典』1,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467.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2, 上海辭典出版社, 55.)

3. 한문의 원전을 오독하는 문제

한시 번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보다도 한문 원전에 충실히 번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문 원전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 냅으로써 번역자는 한시 작품에서 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번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독자는 작자가 그려내고자 하는 정서를 이차적으로나마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은 김춘택의 『북현집』에 수록된 「자극궁 감추의 운에 따라」²⁵⁾의 번역시 전문이다.

바다 밖도 가을빛 물들어
서늘한 바람 대숲에 살랑거리네
밝은 달 절로 뜨고 있는데
흐르는 세월 불잡을 길 없네
지사의 눈물 어찌 한이 있을까
가을생각 나 혼자만은 아니리
근심과 걱정 시작도 끝도 없이 괴로워
한밤중 잠 못 이루네.
고향은 몇 천 리
돌아갈 기약 없네
인간사 차고 기우는데
사물의 이치는 또 갔다가 돌아오리.
어떻게 하면 오래 삶을 배워
상전이 벽해 되도록 번복됨을 보겠는가
길고 긴 나그네 길
누가 금단(金丹)을 빚는 걸 보았는가.²⁶⁾

25) 金春澤, 『北軒集』1 「次紫極宮感秋」 海外亦秋色, 微涼動風竹. 明月自來去,
流光難可掬. 何限志土淚, 秋懷非我獨. 愁憂苦無端, 中夜不能宿. 故鄉幾千里,
歸期未可卜. 人事有盈虧, 物理亦往復. 安得學長年, 桑海閱翻覆. 舟冉征途人,
誰見金丹熟.

26) 金春澤, 2005, 『北軒集』, 金益洙 譯, 全國文化院聯合會濟州道支會, 34.

위 번역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5구이다. “지사의 눈물 어찌
한이 있을까”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의 ‘하한지사루(何限志
土淚)’를 ‘하한지사루(何恨志土淚)’로 읽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한정. 끝.’의 ‘한(限)’이 아니라 ‘몹시 억울하다.
뉘우치다.’의 ‘한(恨)’으로 읽고 있다. ‘하한지사루(何限志土淚)’의
원전대로 읽었다면²⁷⁾ ‘지사의 눈물 어찌 끝이 있을까’로 번역하여
지사의 눈물에 한스러움이 없다는 뜻보다는 지사의 눈물을 끝이 없
다로 번역해야 했을 것이다.

다음도 원전을 잘못 읽고 있는 사례인데, 이원조의 『탐라지초
본』²⁸⁾에 수록된 김종직의 「탁라가」²⁹⁾ 제1수의 번역 전문이다.

우정에서 인사를 나누니 사로가 친구와 같아
무거운 보자기엔 가자가지 진기한 약물
웃소매엔 비린내 끼었고 말씨는 더듬는 듯하니
그대는 정말 바다 섬의 사람일세²⁹⁾

위 번역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구의 “무거운 보자기엔 가
자가지 진기한 약물”的 번역이다. 번역자는 제2구를 원전의 ‘갖가
지 진귀한 약물 꾸리어 썼네.’의 “포과반반약물진(包裹包般般藥物
珍)”이 아니라 “무거운 보자기엔 가지가지 진귀한 약물”的 “포종
반반약물진(包重般般藥物珍)”으로 잘못 읽고 있다. 원전에는 분명하
게 ‘무겁다’의 ‘중(重)’자를 지우고 그 옆에 ‘싸다’의 ‘과(裹)’
자로 고쳐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오독은 적어도 번역자가 원전에 세

27) 이는 한국고전번역원 운영의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김춘택의 『北軒居
士執』卷之一의 「初年錄, 次紫極宮感秋」에도 “何限志土淚”로 적혀 있다.

28) 金宗直, 『耽羅誌草本』2 「毛羅歌」 郵亭相揖若相親, 包重般般藥物珍. 衣袖
帶腥言語濶, 看君眞是海中人.

29) 李源祚, 2007, 『耽羅誌草本(上)』, 고창석 · 김찬흡 · 오문복 · 김혜우 · 김상
옥 · 강창룡 · 오창명 · 오수정 공역, 濟州教育博物館, 211.

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해소될 문제이다. 따라서 번역서의 활자화한 한문 원문만을 본다면 원전과는 다르게 “포중반반약물진(包重般般藥物珍)”으로 읽게 될 수밖에 없다.

4. 이본의 변이 현상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

선현들은 남의 한시를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암송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쓴 시를 차운하여 쉽게 차운시를 쓰기도 했다. 김상현도 『남사록』에서처럼 자신이 직접 쓴 자작시³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인용시도 함께 수록할 수 있었다.³¹⁾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 편의 한시가 여러 문헌에 수록되면서 자연스레 시어의 변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본에 따른 변이 현상은 한시 작품을 해석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변이 현상은 작자의 원래의 정서와는 달리 새롭게 재창작되거나 오기의 형태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상현의 『남사록』에 수록된 「용두암」³²⁾의 번역시 전문이다.

위태한 높이 솟은 바위 자라가 머리를 웅크려
용이 서렸다가 바닷물을 들이키는 모습
도사린 바위 나그네는 마냥 홍이 일어
올라서니 멀리 온 나그네 수십만 더하네
이곳이 낭풍(閑風)이라 서쪽으로 가도 그런 땅 없으리니

30) 『남사록』에는 자작시나 인용시 중에 상당수의 차운시들이 삽입되었다.

31) 이 작품에는 자작시 67편 124수와 인용시 43편 101수가 수록되었다

32) 金尚憲, 『南槎錄』「龍頭巖」 危巖千仞榜鰲頭, 勢引盤龍飲海流. 跌宕遊人聊發興, 登臨遷客獨添愁. 閑風西去無多地, 明月東來幾度秋. 一洗胸中九雲夢, 酒杯詩筆重淹留(濟州道, 1998, 『濟州史資料叢書(I)』, 濟州道, 440-441.)

밝은 달 둑에서 돌아온 지 몇 해던가
가슴 속 구운몽(九雲夢)을 한 번에 씻어내니
술잔 들고 시상에 젓어 거듭 멈춰 서 있네.³³⁾

이 한시는 김상현의 『남사록』은 물론 이중의 『남사일록』,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등에도 수록되었다. 이렇다 보니 이본에 따라 여덟 구 중 다섯 구에서 시어의 변이양상이 나타난다.

제2구의 경우 『남사록』과 『남사일록』에서는 ‘세인반룡음해류(勢引盤龍飲海流)’인 데 반해 『탐라지초본』 등 나머지 이본에서는 ‘세인반룡음해류(勢引蟠龍飲海流)’로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 ‘서려 있는 용의 형상’의 ‘반룡(盤龍)’과 ‘반룡(蟠龍)’이 이본에 따라 달리 표기되었다.

제3구의 경우 『남사록』 등 대부분의 이본에서 ‘질탕유인료발홍(跌宕遊人聊發興)’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 반해 『남사일록』에서만 ‘질암유인료발홍(跌宕遊人聊發興)’로 표기되었다. ‘호방하여 구속되지 아니함’의 질탕(跌宕)이 ‘도사린 바위’의 ‘질암(跌岩)’으로 변이되었다.

제5구의 경우 『남사록』 등 대부분의 이본에서 ‘낭풍서거무다지(閨風西去無多地)’로 적혀 있는 데 반해 유일하게 『증보탐라지』에 서만 ‘문풍서거무다지(聞風西去無多地)’로 적혀 있다. ‘신선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인 낭풍전(閨風巔).’의 ‘낭풍(閨風)’이 ‘바람 소리 들으며’의 ‘문풍(聞風)’으로 변이되었다.

제6구의 경우 『남사록』과 『남사일록』에서는 ‘명월동래기도천(明月東來幾度秋)’로 표기되어 있는 데 반해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명월동래도기천(明月東來度幾秋)’로 표기되었다. ‘몇 번’의 ‘기

33) 李增, 2001, 『南槎日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74.

도(幾度)’가 ‘몇 해’의 ‘기추(幾秋)’로 바뀌었다.

제8구의 경우 『남사록』 등 대부분의 이본에서 ‘주배시필중엄유(酒杯詩筆重淹留)’로 되어 있는 데 반해 『탐라지초본』에서만 ‘배주시필중엄유(杯酒詩筆重淹留)’로 되어 있다. ‘술잔’의 ‘주배(酒杯)’가 ‘술 마시고’의 ‘배주(杯酒)’로 변이되었다.

다음은 『매계선생문집』에 수록된 김창현(金昌鉉)의 「영주십경, 영실기암」³⁴⁾의 번역시인데, 『증보탐라지』의 원문과 적잖은 변이 현상을 보여준다.

조물주 뜻을 지어 바위를 깎았으니
五百將軍이 모두가 평범하지 않구나.
형세는 언덕에 올라 창 방패 잡고 서 있는 듯
위엄은 軍陣에 나가 관복을 떨어 입은 듯
중국인들 가끔 빈 섬을 엿보았지만,
멀리서 온 서양인 배 멈추게 하지 않았네
비 바람 불러일으키는 재주 뛰어나도
항상 그대로 입만 다물고 있네.³⁵⁾

『매계선생문집』과 『증보탐라지』에 수록된 이 여덟 구의 한시는 매 구마다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 제1구는 『매계선생문집』에서 ‘깎았으니’라는 ‘착(斲)’의 ‘천공유의착기암(天公有意斲奇岩)’이 『증보탐라지』에서 ‘유(劉)’의 ‘천공유의유기암(天公有意劉奇岩)’으로 표기되어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제2구는 ‘모두’라는 ‘총(總)’의 ‘오백장군총불법(五百將軍總不凡)’이 ‘총(摠)’의 ‘오백장군총불법(五百將軍摠不凡)’으로 변이되었다. 제3구는 ‘언덕

34) 李漢震, 『梅溪先生文集』「瀛洲十景, 靈室奇巖」 天公有意斲奇岩, 五百將軍總不凡。勢若登壙依戟桿, 威如臨陣拂袍衫。肯教染齒窺空窓, 不許紅毛駐遠帆。喚雨呼風奇變術, 尋常過客口猶緘。

35) 李漢震, 1998,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193.

에 오르다’라는 ‘등담(登壇)’과 ‘창과 방패’라는 ‘극간(戟桿)’의 ‘세약등담의극간(勢若登壇依戟桿)’이 ‘단에 오르다’라는 ‘등천(登擅)’과 ‘화전(畫戰)’의 ‘세약등천의화전(勢若登擅依畫戰)’으로 변이되었다. 제4구는 ‘관대를 맨 윗옷’이라는 ‘포삼(袍衫)’의 ‘위여 임진불포삼(威如臨陣拂袍衫)’이 ‘전장에서의 옷’이라는 ‘정삼(征衫)’의 ‘위여임진불정삼(威如臨陣拂征衫)’으로 변이되었다. 제5구는 ‘…을 즐겨하리’라는 ‘궁교(肯敎)’와 ‘이빨에 칠을 한 왜적’이라는 ‘칠지(柒齒)’와 옛보다’라는 ‘규(窺)’의 ‘궁교칠치규공채(肯敎柒齒窺空寨)’가 ‘즐겨 막아냄’이라는 ‘궁지(肯持)’와 ‘무지한 오랑캐’라는 ‘열치(涅齒)’와 ‘침략하다’라는 ‘침(侵)’의 ‘궁지열치 침공채(肯持涅齒侵空寨)’로 변이되었다. 제6구는 ‘멈추다’라는 ‘주(駐)’의 ‘불허홍모주원범(不許紅毛駐遠帆)’이 ‘주(住)’의 ‘불허홍모주원범(不許紅毛住遠帆)’으로 변이되었다. 제7구는 ‘비바람 불러’라는 ‘환우(喚雨)’의 ‘환우호풍기변술(喚雨呼風奇變術)’이 ‘후우(喚雨)’라고 잘못 쓴 ‘후우호풍기변술(喚雨呼風奇變術)’로 변이되었다. 제8구는 두 글자가 빠진 ‘심상구유함(尋常口猶緘)’이 ‘지나 가는 나그네’라는 ‘과객(過客)’의 ‘심상과객구유함(尋常過客口猶緘)’으로 바뀌어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이 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원전에 가까운 번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5. 교정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흔히들 교정을 볼 때 활자가 요술을 부린다고 한다. 그만큼 교정은 어려운 작업이기에 예로부터 재교로 끝나는 교정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한문을 교정하는 일은 한글에 비

해 더욱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하여 한시 번역에서 교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책의 품격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번역서를 텍스트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정철의 『정현영해처감록』의 「외로이 앉아 삼가 회헌의 유배중 시에 차운하여」³⁶⁾ 번역시 전문이다.

평상 위에 누우니
공허하고 쓸쓸한 고독
나무 끝 까마귀 비 속에 날아가고
푸른 숲의 말은 구름 속에 서 있네
산 모습 원근이 다르고
바다 빛 남북으로 나뉘었네
외로운 나그네의 수심 애절한데
방아노래 술에 취한 채 듣고 있네.³⁷⁾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8구이다. “방아노래”를 활자화한 한문 원문에서는 ‘방아노래’의 “용가(春歌)”가 아니라 ‘봄노래’의 “춘가(春歌)”로 잘못 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 좀 더 교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부분은 3구와 7구이다. 3구의 “녹수아번우(綠樹鴉翻雨)”는 원전에는 “녹수아번우(綠樹鴉翻雨)”로 표기되어 있다. 물론 ‘번(翻)’과 ‘번(翻)’은 동자이므로 번역상에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이본을 대조할 때는 이와 같은 동자·속자·고자·약자 같은 글자에 따라 이본의 변이양상은 물론 선후 관계에 따른 이본의 계통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

36)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1 「孤坐謹次悔軒謫中韻」 一床高臥地, 虛寂我無羣, 綠樹鴉翻雨, 青林馬立雲。山容遠近異, 海色北南分。孤客羈愁切, 春歌醉後聞。

37) 趙貞喆, 2006, 『靜軒瀛海處坎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136.

구의 “고객기수절(孤客羈愁切)”도 원전에는 “고객기수절(孤客羈愁切)”로 표기되어 있다. 있다. ‘기(羈)’와 ‘기(羈)’도 동자이므로 번역상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이본의 변이양상과 계통 파악에는 역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번역시 한 수를 통째로 빼뜨린 경우도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수록된 김종직의 「탁라가」 14수 가운데 제1수를 아예 번역문에서 빼뜨렸다.³⁸⁾ 이로써 김종직의 「탁라가」 14수는 13수가 되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원전에 맞는 정확한 교정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IV. 맷음말

지금까지 제주 출신 학자들이 제주 관련 자료를 주로 제주에서 번역하여 간행한 번역서에 나타난 제주 한시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역서의 등장은 1970년대 들어서인데,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간행한 『탐라문헌집』이 그것이다. 이 번역서에 수록된 자료는 김상현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 일기체 한문수필이나 지지들인데, 이들 자료에는 적잖은 제주 한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이어 1980년대 들어서도 제주 관련 한시를 모아 본격적으로 번역한 『영주풍아』가 출간되고 있으며, 백호 임제가 제주목사로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제주를 일주하면서 견문한 내

38) 이원진, 2002, 『역주 탐라지』, 김찬흡·고창석·김혜우·김상옥·조성윤·강창룡·오창명·오수정 공역, 푸른역사, 206.

용의 일기체 한문수필인 『남명소승』이 번역되어 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1990년대에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이원진의 『탐라지』와 제주목사로서의 행적을 기록한 『지령록』 등이 출간된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 후기 제주 출신 문인인 이한진의 문집 『매계선생문집』이 번역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주 관련 자료 번역서 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 이외에도 제주교육박물관 등이 가세하고 있다. 번역자의 면면도 오문복이나 김익수 같은 원로 한학자뿐만 아니라 한문에 조예 깊은 중진학자나 소장학자들이 대거 번역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목사였던 김정의 『노봉문집』이나 제주에 유배되었던 임징하의 『서재집』과 김춘택의 『북헌집』은 물론 조정철의 『정현영해처감록』 같은 개인문집이 번역서 대열에 합류한다.

2010년대 들어서도 2000년대에 비해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번역서 출간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판관을 지낸 남구명의 『국역우암선생문집』이나 제주에 유배되었던 이건의 『규창집』은 물론 제주목사였던 송인수의 『역주규암선생문집』과 일제강점기 때 제주 조천 출신의 유학자인 해온 김희정의 『해온문집』이 햇빛을 보게 된다.

이들 번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안석국’의 ‘안석(安石)’이 아니라 ‘돌을 편안히 여기어’의 ‘안석’으로 읽거나 ‘초평기석(初平起石)’의 뜻인 ‘도사양(道士羊)’이 아니라 ‘도사가 해매고’로 해석함으로써 시어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인이 변방의 종족을 양잡아 일컫는 말’의 ‘개린(介

鱗)’이 ‘조개와 물고기, 패류와 어류.’의 ‘개린’으로 읽거나 ‘문명. 또는 예의와 제도.’의 ‘관상(冠裳)’이 ‘갓과 옷’의 ‘관상’으로 읽음으로써 시어의 여러 가지 뜻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는 ‘지사의 눈물 어찌 끝이 있을까’의 ‘하한지사루(何限志士淚)’가 아니라 “지사의 눈물 어찌 한이 있을까”의 ‘하한지사루(何恨志士淚)’로 읽거나 ‘갓가지 진귀한 약풀 꾸리어 썼네.’의 “포과반반약물진(包裹包般般藥物珍)”이 아니라 “무거운 보자기엔 가지 가지 진귀한 약풀”의 “포중반반약물진(包重般般藥物珍)”으로 원전을 잘못 읽고 있다.

넷째는 김상현의 「용두암」에서처럼 『남사록』·『남사일록』, 『탐라지초본』·『증보탐라지』 등 이본에 따라 여덟 구 중 다섯 구에서 시어의 변이 현상이 나타나거나 김창현의 「영실기암」처럼 『매계선생문집』과 『증보탐라지』 두 이본에서 여덟 구 전체에서 변이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

다섯째는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의 「외로이 앓아 삼가 회헌의 유배중 시에 차운하여」에서처럼 ‘용가(春歌)’를 ‘춘가(春歌)’로 교정하거나 김종직의 「탁라가」 제1수를 번역문에서 온전히 빠뜨린 교정도 눈에 띈다.

앞으로 제주 한시 번역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좀 더 체계적으로 한시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景鍾, 2006, 『白首餘音』, 白圭尙 譯, 北濟州文化院.
- 金勻培, 2005, 『謹齋北學日記』, 吳文福 譯, 北濟州文化院.
- 김낙행, 2013, 『구사당집』I, 김대현 옮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金斗奉, 2003, 『濟州島實記』, 吳文福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 金奉鉉, 2005, 『濟州島流人傳』, 洪性穆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 金尙憲, 1992, 『南槎錄』, 金禧東 譯, 永嘉文化社.
- 金尙憲, 2008-2009, 『南槎錄 譯註(上)·(下)』, 洪琦杓 譯, 濟州文化院.
- 金錫翼, 2011, 『濟州 속의 耽羅』, 오문복·오창립·허선흐·임병진·임용진·김새미오 공역,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金錫翼, 2015, 『譯註耽羅紀年』, 洪琦杓·白圭尙·金새미오·孫基範 共譯, 제주문화원.
- 김윤식, 2013, 『운양집』3, 이지양 옮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은석·윤치부·박찬식, 2008, 『김만덕자료총서』II, 김만덕기념사업회.
- 金 做, 2001, 『盧峰文集』,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 金 淨, 1998, 『國譯 冲菴集』下, 金鍾燮 譯, 冲菴文簡公宗中.
- 김정희, 1986, 『국역 완당전집』3, 신호열 편역, 솔출판사.
- 金春澤, 2005, 『北軒集』, 金益洙 譯, 全國文化院聯合會濟州道支會.
- 金浹·慎鴻錫, 2000, 『老橘詩集·禾菴詩集』,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 金灑植, 2004, 『革菴散稿』, 吳文福 譯, 北濟州文化院.
- 金熙敦, 2003, 『水隱詩集』, 吳文福 譯,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金熙敦, 2005, 『水隱文集』, 吳文福 譯,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金義正, 2014, 『海殷文集』, 白圭尙 譯, 濟州文化院.
- 南九明, 2010, 『國譯寓庵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教育博物館.
- 淡水契 編, 2005, 『譯註 增補耽羅誌』, 金順伊·金日宇·洪淳晚·金益洙·洪琦杓·朴贊植·高應三·金粲洽·吳文福 共譯, 濟州文化院..
- 백호 임제, 1997, 『譯註 白湖全集』(上)·(下), 신호열·임형택 공역, 창작과 비평사.
- 邊景鵬, 2010,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공역,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손순효, 1987, 『물재선생문집』, 張寅德 譯, 平海孫氏中央宗親會.

- 宋麟壽, 2014, 『譯註 圭菴先生文集』, 白圭尙 譯, 제주교육박물관.
- 申瑢俊 編, 1999, 『李衡祥濟州詩文選』, 탐라목식원출판부.
- 安秉宅, 2008-2015, 『浮海文集』I - IV, 吳文福 譯, 濟州文化院.
- 吳文福, 1988, 『瀛洲風雅』, 봄데강.
- 吳文福 編譯, 1998, 『漢詩選』, 제주문화.
- 吳文福 編譯, 2006,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 오문복 · 양종렬 · 문순덕 · 신용만 · 오종훈 · 김새미오, 2000, 『濟州島 磨崖銘』, 濟州道 · 濟州東洋文化研究所.
- 원감 · 안축 · 이제현 · 민사평, 1993, 『원감국사가송 · 근재집 · 익재집 · 급암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李 健, 2010, 『譯註葵窓集』, 金益洙 譯註, 濟州文化院.
- 이약동, 2006, 『노촌선생문집』, 오문복 역, 제주교육박물관.
- 李元鎮, 1991, 『耽羅志』, 金相助 譯,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이원진, 2002, 『역주 탐라지』, 김찬흡 · 고창석 · 김혜우 · 김상옥 · 조성윤 · 강창룡 · 오창명 · 오수정 공역, 푸른역사.
- 李源祚, 2007-2008, 『耽羅誌草本(上) · (下)』, 고창석 · 김찬흡 · 오문복 · 김혜우 · 김상옥 · 강창룡 · 오창명 · 오수정 공역, 濟州教育博物館.
- 李益泰, 1997, 『知瀛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 李 增, 2001, 『南槎日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 李漢震, 1998,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 林 梯, 1989, 『南溟小乘』, 朴用厚 譯, 도서출판 제주문화.
- 任徵夏, 2004, 『西齋集』, 金益洙 譯, 全國文化院聯合會濟州道支會.
- 정온, 2000-2003, 『국역 동계집』1-2, 조동영 · 박대현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 濟州道, 1998, 『濟州史資料叢書(I)』, 濟州道.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耽羅文獻集』, 金奉玉 · 洪貞杓 · 朴用厚 · 金泰能 · 金行玉 · 金啓淵 譯, 제주도교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4, 『한라산의 마애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 濟州文化院, 2000,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金奉玉 譯, 濟州文化院.
- 濟州文化院, 2007, 『譯註 濟州古記文集』, 金日宇 · 洪琦杓 · 金益洙 共譯, 濟州文化院.

- 제주문화원, 2011, 『용연, 풍류의 새김』(2011 용연선상음악회-용연마애명기록사진전), 제주문화원.
- 조사수·박충원, 2011, 『嶺海唱酬錄』, 현행복 역,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 조 위, 2009, 『梅溪集』, 이동재 옮김, 평사리.
- 趙貞喆, 2006, 『靜軒瀛海處坎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 최익현, 1977, 『국역 면암집』1, 오양·김주희·유세희·이식 공역, 민족문화추진회.
- 현행복, 2004, 『訪仙門』, 도서출판 각.
- 현행복, 2006, 『翠屏潭』, 도서출판 각.
- 현행복, 2010, 『牛島歌』, 도서출판 각.
-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漢韓大辭典』1-15,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1-12, 大修館書店.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1962, 『中文大辭典』1-10, 中國文化大學出版部.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94, 『漢語大詞典』1-13, 上海辭典出版社.

Abract

The study on aspects of translating the Jeju poet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Yoon, Chi-boo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ranslation aspects of Jeju poetry appeared in a foreign-language book mainly translated in Jeju and published by scholars from Jeju. So far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material relating to Jeju appeared in 1970s and the title of it was Tamra literature collections published by Education Committee as a local training material. The works included in Tamramoohengip written in foreign-language are travel essays or geographical records such as Namsarok written by Sang-heon Kim, Tamraji written by Won-jin Lee and Tamraginyen written by Seok-ik Kim. Also, many Jeju poet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ere included. The translation of the materials related to Jeju had increased gradually in the 1990s and 1980s, but it showed a rapid increase in the 2000s because the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Jeju Cultural center and Tamra Cultural Institute of Jeju University made efforts to translate materials related to Jeju in earnest. Also, the range of materials relating to Jeju had been expanded to private collection of works beyond travel essay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or records about geography. In the aspects of the translator, the scholars of the leading group and the young group who studied Chinese literature, historical studies and Korean language study in earnest as well as veteran scholars of the Chinese classics such as Oh Moon-bok and Kim Ik-soo have participated in translating works. But these translations were exposed to considerable problem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errors in translation such as out of context due to translating the poetry without accurate historical research. Second, explanatory notes do not help explaining poetry because those of poetry were explained in commonsense level and there were errors in translation because necessary explanatory notes of the poetry were missed. Third, the author of emotion was mistranslated by misreading the Chinese original text. Fourth, the end did not make an accurate translation because the semantic phenomena were not figured out due to the different version of poetry. Fifth, the original translated texts did not match the printed texts due to neglecting proofreading the original texts. In order to jump forward one more step in Jeju poetry translation of these issues will have to be done in a more systematic improvements in poetry translation work continuously.

Keywords : Jeju poet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spects of translating, different version of poetry, explanatory notes

교신 : 윤치부 63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국어교육전공

(E-Mail: poonch@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6. 07. 28.

수정완료일 : 2016. 08. 08.

게재확정일 : 2016. 08. 16.